

‘일본병’ 국제문제로 대두

노승준/㈜CJK스트래티지 대표



영국병이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 이제 ‘일본병’이 심각한 국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병의 증상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개혁을 입으로만 떠들고 행동은 안한다. 둘째, 사회 시스템이 경직돼 전

례에 의존하고 새로운 시도는 안한다. 셋째, 위기의식이 희박하여 효과적인 정책이나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 넷째, 리스크를 두려워하여 성장분야가 육성되지 않는다.

이쯤되면 상당히 중증이다. 대표적 일본 예찬론자로 ‘Japan As Number One’이라는 책을 낸 하버드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는 이제 일본이 구조개혁을 더 이상 지체하면 외지는 다 빠져 나가고 파탄상태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일본은 왜 이렇게 병약한 몸이 되었는가’의 문제를 함축하는 개념이 ‘구조적 디플레이션’이다. 현재의 디플레이션은 단순한 화폐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체가 구조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다. 즉 돈을 아무리 풀어도 디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버블의 기간 동안 재화가 너무 오래 초과 공급되어 수요를 누르는 엄청난 갭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평성 디플레이션’의 진정한 어려움은 엄청난 수급의 갭에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도 악질이다. 시민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위축된 개인과 가계는 무려 1400조엔 (1경4000조원)이라는 자산을 현금과 예금으



로 가지고 있다. 이 천문학적 수의 돈이 돌지 않고 고여 있으니 금융개혁이 일본개혁의 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언제부터인가 일본인에게 소비란 외식과 여행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구조적인 문제로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비경제인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6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전인구의 25%로 웬만한 국가에 맞먹는 3175 만명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당연히 무직이 늘어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세대주가 직장이 없는 무직세대가 23%로 이는 GDP 성장률을 자동적으로 1% 감소시키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자존심 상하고 당혹스러운 일본병을 앓으며 많은 일본인들은 이제 ‘특이한’ 나라에서 ‘보통의’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도 이제는 ‘보통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더 이상 특별히 도와줄 것도 없고 ‘역사문제’에 연연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계산에 입각한 관계를 기대한다. 따라서 경제적 협력의 가능성은 앞으로 더 크다.

실제 일본경제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다. 일본기업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일본기업의 매수, 합병 등도 충분한 시기가 왔다.

일본의 생명보험, 연기금, 종합상사 등은 한국이 우량한 투자시장으로 믿고 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대금업체들이 생명보험 등의 싼 자금을 가지고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옥석의 구분과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후의 국내의 벤처기업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투자대상이 될 것이다.



㈜CJK스트래티지는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회사로, 국제적·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